

영화 '흥부', 풍자·해학·여운 선사할 블랙코미디 사극



고전 '흥부전'을 새롭게 해석한 '흥부'가 설 연휴 관객들을 찾아온다. '흥부'는 풍자와 해학, 권선징악의 스토리로 시대를 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흥부전'은 아직 작가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다.

영화 '흥부'는 바로 이 작자 미상의 소설 '흥부전'을 쓴 작가가 '흥부'라는 설정을 보여준다. 조선 최고의 천재작가 '흥부' (정우)가 전하지 않은 두 형제 '조혁' (김주혁)과 '조항리' (정진영)를 통해 영감을 얻어 탄생시킨 작품이 바로 '흥부전'이라는 것.

오는 2월 설 개봉을 확정 지은 영

'흥부전' 새롭게 해석해 설연휴 개봉 예정 환난 속 새로운 세상 변화 꿈꾸는 이야기

작품 중 가장 먼저 개봉을 앞둔 영화

사회를 맡은 박경림은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이 계시다. 조혁 역을 맡았던 김주혁 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우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라고 말문을 연 뒤, "말이 보고 싶습니다 주혁이형"이라고 말해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흥부'는 조선 헌종 재위 당시 양반들의 권력다툼으로 백성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환난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변화를 꿈꾸는 이야기를 그리며 풍자와 희망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연출을 맡은 조근현 감독은 '흥부'가 블랙코미디라고 밝혔다.

그는 "시나리오에서 두 지점이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흥부전이 유쾌하고 해학적인데, 그냥 웃기는 것이 아니라 블랙코미디이다"고 언급한 것.

또한 이 시대에 '흥부'라는 영화

가 시사하는 지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조 감독은 "그 시대에 백성들이 느꼈던 고통, 백성들이 갖고 있던 희망등이 지금과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흥부 이야기를 내놓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근현 감독은 "사실 김주혁은 '흥부' 결정을 쉽사리 할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주혁이 영화 제안을 받고 난 다음날 아침 일찍 영화사에 나를 찾아 왔다. 밤을 새고 왔다고 하더라. 같이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함께 있었는데, 김주혁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더라. 아마 그때는 서로 조심했던 것 같다. 이때다 싶어 같이 하자고 했고 '알겠다'고 하고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집요하게 캐리커처를 파고들었다"고 추언하며, 김주혁에 대해 "한번쯤은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배우였다"고 덧붙였다.

고전의 재해석과 명품 배우, 제작

진의 시너지를 기대케 하는 하는 영화다.

누구나 알고 있는 '흥부전'이지만 누구도 모르는 '흥부전'의 작자와 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밝힌다는 참신한 스토리로 색다른 재미를 예고하고 있다.

독보적인 연기파 배우 정우는 조선 최고의 대중소설작가로 변신했다.

정우는 극 중 조선 최고의 대중소설작가 '연흥부' 역을 맡는다. '흥부'에서 그가 연기할 '연흥부'는 잃어버린 형을 찾기 위해 대중소설을 쓰는 작가로, 어지러운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조혁'을 만나 깨달음을 얻는 인물이다.

정우는 "'흥부'라는 작품이 새롭게 다가왔고 낯설지 않았다. 가장 끌렸던 것은 캐리커처였다. 연흥부라는 캐릭터 자체가 제가 바라봤을 때는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시대적인 배경이 조선시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캐릭터가 시대에 들어가면서 어디로 될지 모르는, 그런 매력에 많이 매료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 '흥부'에서 전혀 다른 두 형제 '조혁' (김주혁)과 '조항리' (정진영)로 출연하는 정진영은 "영화 속

에서 사이가 안 좋은 형제로 나와서 그런지 마음이 더 그렇다. 영화 속에서 주혁이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관객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봐 주셨으면 한다"고 개봉을 앞둔 소감을 전했다.

이어 "'흥부'는 신명이 밀바탕에 깔린 영화이다. 김주혁 일도 있어서 이 자리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저희 마음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실존인물 '헌종'을 연기한 정혜인은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겁다. 연기를 하면서도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연약함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종이)양옆 신배님들께 휘둘러서 정치를 못한다.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라 정치를 제대로 못해 백성들이 힘들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흥부'는 '26년' (2012), '봄' (2014)을 통해 섬세하고 감각적인 연출력을 선보인 조근현 감독이 연출을 맡고, 최근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킨 JTBC 드라마 '힐튼여자 도봉순'의 백미경 작가가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오는 2월 설 연휴 개봉 예정이다.

이보영부터 박서준까지...상반기 출몰 리메이크작 기대감



일드, 미드, 웹툰에 소설까지 상반기 안방극장은 리메이크작들이 대거 출몰한다. 그러나 원작의 인기로 큰 기대를 모은 리메이크작들이 기대에 비해 성공작은 많지 않아 관계자들의 한숨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이번 상반기 리메이크작들은 어떻게 될지 살펴본다.

가장 먼저 시청자들을 찾아가는 건 tvN '마더'다. 오는 2월 첫 신을 보이는 '마더'는 도쿄 드라마 어워드 4관왕 등 작품성과 화제가 검증된, 최고의 웹메이커 일본드라마(이하 일드)로 손꼽히는 동명의 일드를 원작으로 한다. 엄마가 되기엔 차가운 선생님인 엄마에게 버림받은 8살 여자 아이의 진짜 모녀가 되기 위한 가슴 모녀의 가슴 시린 러브 스토리.

그러나 그간 일드 리메이크작들은 성공 사례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매번 원작팬들의 날선 비판들이 시달려왔다. 일드 특유의 느긋 대신 우리식으로 각색한 것에 불만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캐스팅단계부터

심크로울을 따지며 '갑과라 배워라 한 사례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마더'에는 아직까지 기대감이 높다. '밀고 보는 배우' 이보영이 주인공으로 나서 뜨거운 모성에 연기를 펼친다는 사실은 물론 심크로울도 좋다는 팬 반응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이해영은 카리스마 어머니 캐릭터 영신 역을 맡고, 고성희는 불안한 어머니 지영 역으로 나서 각기 다른 모성에 연기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OCN이 4월 편성 예정인 '미스트리스'도 있다. '미스트리스'는 배우 김윤진이 출연해 국내팬들에게도 사랑받은 미국 ABC의 '미스트리스'로 잘 알려진 작품. OCN 측은 "원래 원작은 미국드라마(이하 미드)가 아니라 영국드라마. 영국 BBC에서 방송한 영국 원작이어서 이번엔 우리도 BBC와 관련 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배우 한기인이 주인공으로 물망에 올라 그의 6년만의 복귀작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오는 4월 방영으로 준비 중인 KBS2 '슈츠'는 인기 미드를 원작으로 한다. 현재 시즌까지 방영중으로, 과연 국내 시청자들에게는 어떤 호응을 받을지 주목된다. 최근 미드 리메이크작들은 희비가 매번 엇갈렸다. 지난 2016년 tvN '굿 와이프'가 국내 첫 미드 리메이크작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지난해 아쉽게도 선보인 tvN '크리미널 마인드'는 원작 팬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한 드라마 관계자는 "해외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우리에게도 무조건 통할거란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원작을 안 본 사람들에게도 큰 매력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건 리메이크작 자체의 완성도나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웹툰과 소설 원작 리메이크작들도 있다. 올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하는 JTBC '미스 함무라비'는 판사 문유석이 쓴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해 주목을 받을 전망. 초미니스커트에 길항을 신는 열혈 신입 판사 박차오름의 이야기로 고아라가 캐스팅돼 이달 중 촬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근 '윤식당'로 한껏 주목받고 있는 박서준이 주인공으로 물망에 올라 기대가 더 높아지는 '김비서'는 왜 이렇까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김유정이 캐스팅을 검토 중인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역시 인기 웹툰 원작이다.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의 여주인공으로는 김유정이 출연을 검토중. 김유정이 고등학교 졸업 후 첫 도전으로 '반쯤 너'가 되기로 결정할지 주목된다.

"입소문의 힘" '1987', '신과함께' 꺾고 1위 역전



영화 '1987' (장준환 감독)이 '신과함께-죄와 벌'을 꺾고 박스오피스 1위를 탈환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1987'은 지난 8일 하루 17만 9880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관객수는 426만 9452명이다.

'신과함께-죄와벌'은 지난해 12월 20일 개봉한 이래 박스가 넘도록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천만 관객을 동원

하는 기록을 냈다. '신과함께-죄와벌'보다 일주일 뒤에 개봉한 '1987'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지만 영화의 내용에 대한 호평과 감동적인 실화가 입소문이 나며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위로 떨어진 '신과함께-죄와벌'은 같은 날 17만 4364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누적관객수는 1167만 6841명이다.

한편 '1987'은 '8월 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1987년 1월 경찰 조사를 받던 스물두 살 대학생 박종철이 사망한 후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썼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를 그렸다.

세 명의 멤버로 구성된 그룹으로 지난해 2015년 데뷔했다. '그날처럼'은 슬픈 이별을 경험해본 사람, 혹은 이러한 옛 추억을 간직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슬픈 발라드.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곡이지만 당시에는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SNS를 중심으로 '그날처럼'이 큰 화제를 모으며 음원 차트를 역주행했고 1위까지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4일째 차트 1위를 수성하고 있는 '그날처럼'의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SNS의 힘" 장덕철 '그날처럼', 4일째 차트 1위 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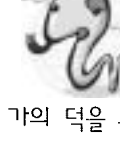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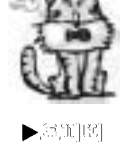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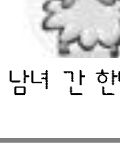

새해 첫 역주행의 주인공인 3인조 그룹 장덕철이 4일째 차트 1위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오전 7시 기준 장덕철의 '그날처럼'은 멜론과 지니, 엠넷, 소리바다, 유투뮤직, 몽키7 등 음원차트 6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장덕철은 안철, 장준혁, 강덕인

를 그렸다.

오늘의 순세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음력 11월 24일)

 <p>▶ 신년 진실은 진실로 통하는 법. 묵묵히 주어진 일에 열중하고, 타인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자식에게 더욱 신경 쓰라. 제작 견속업을 하는 사람은 흥하는 날이다. 단, 여자관계를 경계할 것. 4, 5, 6월생 노란색 단정.</p>	 <p>▶ 음력 축제 분위기에 휩쓸리다 다툼이 있을 듯. 과음을 삼가고 인행을 조심하라. 사업이 위태로운데 허황한 마음으로 한눈팔지 말라. 내조의 힘이 있어야 번창할 수 있다. 1, 4, 9월생 내실을 기하라. 발길 운전 조심.</p>	 <p>▶ 음력 필요 이상 감정을 드러내면 대인 관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애정에 실패한 사람, 여자는 연하가 따르고 남자는 연상이 따른다. 좋은 인연이 될 듯하다. 금전 조달은 될 듯하면서 침체 상태가 될 듯.</p>
 <p>▶ 음력 바랄 일보다 내실을 기하라. 가족 사이 서로 감싸주는 사랑이 필요하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가정이 원만해야 사업도 안정된다. 5, 6, 10월생 투기는 삼가고 현 상태를 유지하라. 신경과민은 금물.</p>	 <p>▶ 음력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 때. 실력자와 협력해 일을 추진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 있을 듯. 6월생은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으면 끝까지 간직하라. 살결이 검은 사람은 친가의 덕을 보면서도 신경을 쓰는구나.</p>	 <p>▶ 음력 혼자 욕심부리기보다 남을 도우면 큰 이득이 생긴다. 차근차근 탐을 쌓듯 베풀라. 한꺼번에 복이 온다. 4, 8, 10월생 신병이 악화하거나 우울증에 빠질까 염려된다. 애정은 욕심을 버리라.</p>
 <p>▶ 음력 성급한 행동은 오히려 해를 가져온다. 때를 기다리며 자기 수양에 힘쓰라. 사업이나 가정 문제도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로 재출발할 때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며 행동하라.</p>	 <p>▶ 음력 기쁨과 즐거움이 교차할 수. 여러 모임을 지출도 많으나 수입도 있겠다. 기혼여성은 직업을 갖고 싶으면 부업으로 작게 시작하라. 짝말한 재미를 볼 수 있겠다. 욕심은 금물이다. 한 계단씩 올라가라.</p>	 <p>▶ 음력 사소한 일로 오해가 있으나 시간이 해결해준다. 성급히 굴지 말라. 참는 자세가 복이 있다. 애정은 부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삼가라. 주위에 보이지 않는 눈이 수없이 많음을 인식하고 인행에 조심하라. 구설이 따른다.</p>
 <p>▶ 음력 겸손이 지나치면 오히려 무시당할 수 있다. 매사 자신 있게 행할 것. 세상에 자기만 외롭고 답답한 여자라 착각하지 말라. 우물을 파려면 한 우물을 파라. 믿었던 사람이 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7, 8, 9월생 흰색으로 자신감 찾을 것.</p>	 <p>▶ 음력 꾸준함이 성공을 가져오는 것처럼 새로운 것보다는 현재를 지켜나감에 길하다. 자신 없이 하는 일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하는 격이니 용기가 필요하다. 3, 7, 12월생은 남년 간 한발 양보해 성격을 맞추라.</p>	 <p>▶ 음력 저질러 놓고 강당하지 못 할 것은 하지말라. 가끔은 엉뚱한 행동으로 가족들을 놀라게 하는 성격 고치라. 생업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지키고 안정도 해야 한다. 당신 아내가 알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p>